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 분석

강 승 희[†]
(부경대학교)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chool Adjustment, and Learning Flow in Middle School Students

Seung Hee K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chool adjustment and learning flow in middle school students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553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by using the SPSS 12.0 and AMOS 5.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chool adjustment and learning flow. Seco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directly affected the learning flow. Third,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variables indirectly affected learning flow. The indices of the best fit model on these variable were adequate. This study shows that the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chool adjustment are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the learning flow during adolescent.

Key words :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chool adjustment and learning flow

I. 서론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교육학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변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습자

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탐구 노력들 가운데 최근 들어 학업성취의 예언 변인으로 학습몰입이 등장하고 있다. 몰입(flow)은 Csikszentmihalyi가 1975년도에 소개한 심리학적 개념으로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어떤 행동이 몰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으로 우리의 주의를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245, sheekang@pknu.ac.kr

때를 말하는 것이다.

몰입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스포츠나 레저, 직장의 업무수행 등과 같은 비교과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사회학,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몰입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며,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가 다른 개념들에 비해 활발하게 연구된 것은 아니다(유은주, 최명숙, 최성열, 2010; 홍기철, 2009).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학습몰입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계보경, 김영수, 2008; 김보경, 김재동, 2005; 김종운, 김효은, 2012; 김희중, 2012; 박성익, 김연경, 2006; 이숙정, 2011; 이지혜, 2010;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학습몰입은 학습자의 주의를 학습에만 자유롭게 사용되어 학습에 푹 빠져있는 매우 즐거운 상태로써, 이러한 상태는 다른 분야의 몰입과 마찬가지로 최적의 심리상태 혹은 현재 경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이며(박성익, 김연경, 2006; 이지혜, 2010), 학습과정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이은주, 2001).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컴퓨터 게임을 할 때처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몰입하게 된다면 학습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학업성취에 대한 학습몰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학습몰입과 학습 관련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김영희, 김영수, 2006; 신현아, 장윤옥, 2011; 이정민, 윤석인, 2011; 주영주, 김지연, 최혜리, 2009; 주영주, 임연옥, 손현수, 2010; Kye, 2009; Shin, 2006)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을 잘하는 것일까? 이제 교육자들의 관심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Stenrnberg와 Davidson(1995)도 몰입의 상태가 즐거운 경험이기기는 하지만,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몰입을 위한 전략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학습몰입을 결과변인으로 하여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습몰입 관련 연구들 중,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된 변인은 자기결정성 동기를 비롯한 동기관련 변인(김진호, 2003; 김희정, 2012; 배종찬, 2011; 이상미, 2011)과 부모-자녀관계 혹은 교사-학생 관계(김희정, 2012; 이숙정, 2010)와 같은 사회적 관계 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인만으로 학습몰입도가 높은 학생의 특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변인과 관련이 있는 학습을 놓고 볼 때, 학습몰입과 관련된 특성들도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습몰입과 함께 연구되지 않았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학교적응을 학습몰입 관련변인으로 상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어떠한 구조로 학습몰입을 설명해 주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먼저,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수행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해나가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의 대표적인 변수 중 하나로 교육현장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습자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Bong & Skaalvik, 2003). 학습자가 수행목표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은 유능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습몰입에 필요한 특성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최적의 몰입상태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정도를 지각된 도전과 기술의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도전이 충분하나 이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할 경우 학습자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기술은 충분하지만 도전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권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최적의 몰입은 지각된 도전과 기술 간의 균형을 이룬다고 느낄 때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가 가지는 유능감 형태인 자기효능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연구결과들(김희정, 2012; 이숙정, 2011; 주영주, 정애경, 임연옥, 김가연, 2010; Puzziferro, 2008)은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이나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축적된 실증연구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상정한 또 다른 변인은 자기주도학습이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특성을 분석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적용 및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Knowles, 1975). 자기주도학습자는 스스로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며, 학습전략 및 자기평가 등을 토대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김중운, 정보현, 2012; 이지혜, 2010). 이러한 특성은 인지적 몰입의 특성과 유사하다. 인지적 학습몰입이란 자신의 수행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활동에 대해 중간중간 확인하는 구체적인 피드백, 위기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을 조절하는 자기통제력, 실현가능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수행하는 명확한 목표설정 등이 필요하게 된다(석임복, 2008). 이러한 유사한 특성들로 인해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며, 몇몇 연구에서는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간에 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박형근, 2010; 유은주, 최명숙, 최성열, 2010; 이재신, 2009; 이지혜, 2009). 그러나 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과 다른 변인들을 투입했을 때 학습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과 함께 학습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고려하였다. 적응의 문제는 곧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냐의 문제로 귀결된다(Keyes & Lopez, 2002). 실제로 몰입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lai-Gail, 1994; Hektner, 1996). 지금까지는 학교적응과 학습몰입을 함께 연구한 경우, 학교적응을 학습몰입의 결과로 연구하였으며(이숙정, 2011; 정석현, 이종우, 2008), 그들의 연구결과, 학습몰입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학교 장면이 아닌 직업 장면에서는 적응이나 만족상태가 몰입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김동희, 하규수, 2011; 정윤경, 정철영, 2006; 황석준, 최형임, 홍순구, 이강배, 2012; Scandura & Lankau, 1997). 이러한 결과가 학교장면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학선수의 대학생활 적응이 선수생활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용석, 2010). 대학생과 청소년의 학교 환경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학교적응도와 높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오는 갈등이나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함으로써 학습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적응과 학습몰입간이 관련성 연구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습몰입을 학교적응 상태의 결과변인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하기 위한 선행조건들로 학교적응을 다른 변인들과 함께 탐색하여 학습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해 보는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습몰입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동안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이 두 변인과 함께 학교적응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고, 또한 학습몰입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나 학습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면 학습몰입을 어떻게 높일수 있는지의 문제는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와 구조로 학습몰입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학습몰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단계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및 학교적응이 어떠한 경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 및 학습몰입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및 학교적응은 학습몰입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3개 중학교 1,2,3학년으로 총 553명이다. 3개 학교에 배부된 설문지는 최초 575부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은 학생 22명을 제외하고 55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이 중 남학생은 346명(62.68%), 여학생은 207명(37.4%)이었고, 1학년 260명(47.0%), 2학년 147명(26.6%), 3학년 146명(26.4%)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검사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이나 신념을 말하며 7문항이다. 둘째,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12문항이다. 셋째, 과제 난이도는 목표 설정 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alpha = .90$ 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신감 $\alpha = .81$, 자기조절효능감 $\alpha = .88$, 과제난이도 $\alpha = .73$ 으로 나타났다.

나. 자기주도학습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척도(허남진, 200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이며,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개의 하위요인은 학습호기심(5문항), 학습열정(5문항), 학습자신감(8문항), 학습책임감(8문항), 학습탐구심(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각 문항마다 5단계의 평정척도에 의해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alpha = .94$ 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학습호기심 $\alpha = .78$, 학습열정 $\alpha = .80$, 학습자신감 $\alpha = .85$, 학습책임감 $\alpha = .82$, 학습탐구심 $\alpha = .80$ 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측정은 김용래(2000)

가 제작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1개의 문항의 검사로서 학교환경적응(10문항), 학교교사적응(10문항), 학교수업적응(8문항), 학교친구적응(7문항), 학교생활적응(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며, 학교적응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학교적응 척도의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alpha = .95$ 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학교환경적응 $\alpha = .89$, 학교교사적응 $\alpha = .89$, 학교수업적응 $\alpha = .88$, 학교친구적응 $\alpha = .81$, 학교생활적응 $\alpha = .78$ 로 나타났다.

라.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몰입 척도는 박형근(2010)이 개발한 척도로서 총 35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하위요인은 학습과제에 대한 집중(8문항), 학습활동과 인식의 통합(9문항), 명확한 학습목표(8문항), 도전적 과제와 능력의 조화(6문항), 시간감각의 왜곡(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학습몰입 척도의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alpha = .95$ 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 $\alpha = .81$, 학습활동과 인식의 통합 $\alpha = .83$, 명확한 학습목표 $\alpha = .78$, 도전적 과제와 능력의 조화 $\alpha = .75$, 시간감각의 왜곡 $\alpha = .68$ 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2.)과 AMOS(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첫째,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와 변인들의 경향 파악을 위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셋째,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 등의 관계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합치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들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553)

| 변인 | 하위변인 | M | SD |
|--------|--------|------|-----|
| 학습몰입 | 과제집중 | 3.06 | .69 |
| | 학습활동인식 | 2.81 | .70 |
| | 학습목표 | 2.70 | .62 |
| | 도전과제 | 3.05 | .73 |
| | 시간왜곡 | 2.93 | .79 |
| 자기효능감 | 자신감 | 3.24 | .78 |
| | 자기조절 | 3.26 | .64 |
| | 과제난이도 | 2.85 | .76 |
| | 학습호기심 | 3.23 | .75 |
| 자기주도학습 | 학습열정 | 3.17 | .78 |
| | 학습자신감 | 3.00 | .71 |
| | 학습책임감 | 3.17 | .71 |
| | 학습탐구심 | 3.07 | .79 |
| 학교적응 | 환경적응 | 2.91 | .76 |
| | 교사적응 | 3.00 | .76 |
| | 수업적응 | 2.90 | .80 |
| | 친구적응 | 3.18 | .72 |
| | 생활적응 | 3.22 | .66 |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습몰입 각 하위요인들의 평균은 과제집중 ($M=3.06$, $SD=.69$), 도전과제($M=3.05$, $SD=.73$), 시간왜곡($M=2.93$, $SD=.79$), 학습활동인식($M=2.81$, $SD=.70$), 학습목표($M=2.70$, $SD=.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

들의 평균은 자기조절효능감($M=3.26, SD=.64$), 자신감($M=3.24, SD=.78$), 과제난이도($M=2.85, SD=.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의 각 하위요인들의 평균은 학습호기심($M=3.23, SD=.75$), 학습열정($M=3.17, SD=.78$), 학습책임감($M=3.17, SD=.71$), 학습탐구심($M=3.07, SD=.79$), 학습자신감($M=3.002, SD=.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학교적응의 각 하위요인들의 평균은 학교생활적응($M=3.22, SD=.66$), 학교친구적응($M=3.18, SD=.72$), 학교교사적응($M=3.00, SD=.76$), 학교환경적응($M=2.91, SD=.76$), 학교수업적응($M=2.90, SD=.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의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의 정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 간에 모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r=.63, p<.001$), 학습몰입과 학교적응($r=.62, p<.001$),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r=.33,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는 자신감과 시간왜곡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과제집중과 자기조절효능감 간의 상관($r=.44, p<.001$)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와 학습몰입의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학습몰입의 각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크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자신감과 학습몰입 각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은 가장 작게 나타났다(예, 학습목표 및 능력조화와 자신감, $r=.11, p<.01$).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 하위요인

들 간의 관계 역시 $r=.33(p<.001$, 시간왜곡과 학습탐구심간의 상관)에서 $r=.57(p<.001$, 과제집중과 학습책임감간의 상관)까지로 나타나, 두 변인간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과 학습몰입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r=.32(p<.001$, 교사적응과 학습목표 간의 상관)에서 $r=.56(p<.001$, 과제집중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까지로 나타나, 두 변인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자기주도학습과 학교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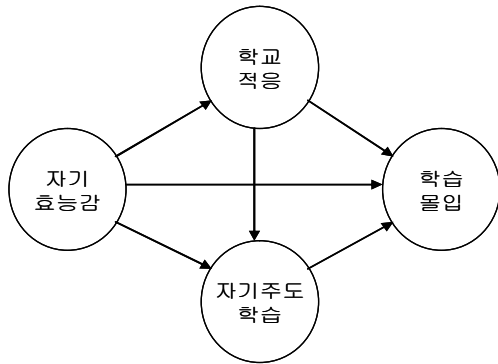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희정, 2012; 이숙정, 2011; 주영주, 정애경, 임연옥, 김가연, 2010; Puzziferro, 2008)),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박형근, 2010; 유은주, 최명숙, 최성열, 2010; 이재신, 2009; 이지혜, 2009), 적응이 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정윤경, 정철영, 2006; 2011; Scandura & Lankau, 1997),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주동범, 전은순, 2011; 허은영, 2009),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이인하, 박지은, 김도진, 최성열, 2011; 이하늘, 이숙, 2012; 주동범, 2011), 그리고 자기주도학습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한상훈, 2006; 허남진, 2005)들을 참조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와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표 2>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553)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79*** | 1 | | | | | | | | | | | | | | | | | | | | | |
| 3 | .81*** | .80*** | 1 | | | | | | | | | | | | | | | | | | | | |
| 4 | .78*** | .78*** | .77*** | 1 | | | | | | | | | | | | | | | | | | | |
| 5 | .70*** | .70*** | .70*** | .68*** | 1 | | | | | | | | | | | | | | | | | | |
| 6 | .91*** | .91*** | .91*** | .90*** | .85*** | 1 | | | | | | | | | | | | | | | | | |
| 7 | .16*** | .12** | .11** | .11** | .02 | .12** | 1 | | | | | | | | | | | | | | | | |
| 8 | .44*** | .40*** | .38*** | .42*** | .28*** | .43*** | .41*** | 1 | | | | | | | | | | | | | | | |
| 9 | .30*** | .27*** | .22*** | .28*** | .16*** | .28*** | .39*** | .58*** | 1 | | | | | | | | | | | | | | |
| 10 | .37*** | .32*** | .29*** | .33*** | .18*** | .33*** | .77*** | .80*** | .82*** | 1 | | | | | | | | | | | | | |
| 11 | .53*** | .51*** | .50*** | .51*** | .41*** | .55*** | .12** | .48*** | .30*** | .36*** | 1 | | | | | | | | | | | | |
| 12 | .54*** | .53*** | .52*** | .51*** | .45*** | .57*** | .09** | .43*** | .36*** | .36*** | .70*** | 1 | | | | | | | | | | | |
| 13 | .53*** | .52*** | .51*** | .52*** | .39*** | .55*** | .21*** | .47*** | .35*** | .42*** | .67*** | .66*** | 1 | | | | | | | | | | |
| 14 | .57*** | .52*** | .52*** | .53*** | .43*** | .57*** | .14** | .52*** | .38*** | .42*** | .70*** | .72*** | .72*** | 1 | | | | | | | | | |
| 15 | .45*** | .38*** | .37*** | .42*** | .33*** | .44*** | .16** | .40*** | .32*** | .36*** | .56*** | .61*** | .63*** | .70*** | 1 | | | | | | | | |
| 16 | .61*** | .57*** | .57*** | .58*** | .47*** | .63*** | .17*** | .54*** | .40*** | .45*** | .85*** | .86*** | .86*** | .89*** | .82*** | 1 | | | | | | | |
| 17 | .44*** | .49*** | .46*** | .44*** | .44*** | .51*** | .09** | .17*** | .11** | .15*** | .20*** | .25*** | .23*** | .23*** | .20*** | .27*** | 1 | | | | | | |
| 18 | .37*** | .36*** | .32*** | .35*** | .35*** | .39*** | .09** | .23*** | .19*** | .21*** | .23*** | .26*** | .21*** | .22*** | .18*** | .26*** | .55*** | 1 | | | | | |
| 19 | .46*** | .46*** | .43*** | .41*** | .42*** | .49*** | .13** | .31*** | .24*** | .28*** | .31*** | .34*** | .34*** | .37*** | .26*** | .38*** | .44*** | .67*** | 1 | | | | |
| 20 | .46*** | .47*** | .46*** | .41*** | .38*** | .49*** | .15** | .22*** | .10** | .19*** | .22*** | .23*** | .20*** | .23*** | .18*** | .25*** | .64*** | .46*** | .29*** | 1 | | | |
| 21 | .56*** | .53*** | .52*** | .49*** | .53*** | .59*** | .08** | .30*** | .19*** | .23*** | .35*** | .33*** | .28*** | .38*** | .27*** | .38*** | .61*** | .54*** | .49*** | .56*** | 1 | | |
| 22 | .58*** | .58*** | .55*** | .53*** | .53*** | .62*** | .14** | .31*** | .21*** | .27*** | .33*** | .40*** | .32*** | .36*** | .28*** | .39*** | .82*** | .75*** | .74*** | .80*** | .80*** | 1 | |

*p<.05, **p<.001, ***p<.001,

1.과제집중, 2.인식통합, 3.학습목표, 4.능력조화, 5.시간예측, 6.학습불입, 7.자신감, 8.조절효능감, 9.과제난이도, 10.자기효능감, 11.학습호기심, 12.학습열정, 13.학습자신감, 14.학습책임감, 15.학습탐구심, 16.자기주도학습, 17.환경적응, 18.교사적응, 19.수업적응, 20.친구적응, 21.생활적응, 22.학교적응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연구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χ^2 검증의 경우에는 비교적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카이제곱/자유도 비율을 계산해보았다. 카이제곱/자유도 비율인 Q값이 5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모형

에서 5보다 작게 나타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간명성과 적합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증분 적합도 지수인 TLI와 모형이 하나일 경우에 적합한 지수인 CFI, NFI를 산출하였다. 또한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부합도를 나타내는 절대적합지수인 GFI, AGFI, RMSEA 등을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 NFI, CFI가 .90이상으로 판명되었으며, GFI가 .90이상이며, AGFI도 .9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한다고 하였으므로(소연희, 2011; 홍세희, 2000), 본 연구모형은 양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표 3>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 적합도지수 | χ^2 | df | p | 절대적합지수 | | | 증분적합지수 | | |
|-------|----------|-----|------|--------|------|-------|--------|-----|-----|
| | | | | GFI | AGFI | RMSEA | TLI | NFI | CFI |
| 연구모형 | 410.90 | 129 | .000 | .90 | .88 | .07 | .94 | .93 | .95 |

연구모형에 대한 표준화된 모수추정치는 [그림 2]와 같고, 관련변인들이 어떤 경로로 학습몰입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

간 관계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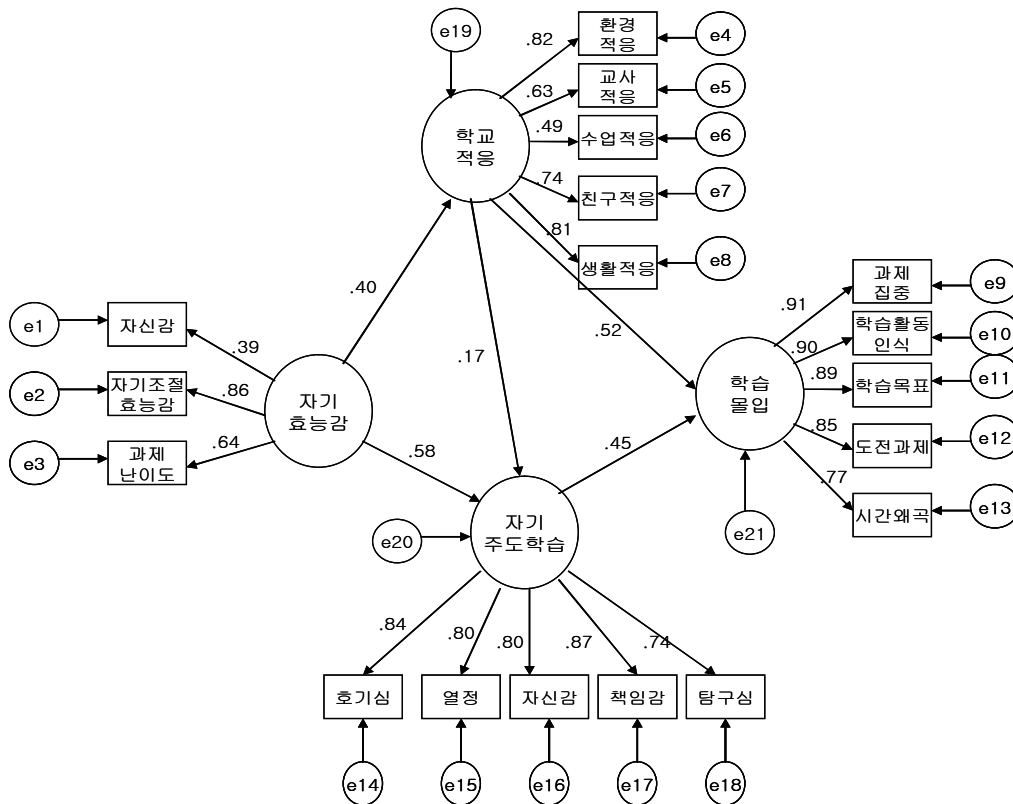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

| 설명변인 | → | 예측변인 | 표준화 회귀계수 | 비표준화 회귀계수 | S.E. | CR |
|--------|---|--------|----------|-----------|------|-------|
| 자기효능감 | → | 학교적응 | .40*** | .74 | .14 | 5.41 |
| 자기효능감 | → | 자기주도학습 | .58*** | 1.26 | .19 | 6.49 |
| 자기효능감 | → | 학습몰입 | .01 | .03 | .12 | .22 |
| 학교적응 | → | 자기주도학습 | .17*** | .21 | .06 | 3.37 |
| 학교적응 | → | 학습몰입 | .52*** | .63 | .05 | 11.91 |
| 자기주도학습 | → | 학습몰입 | .45*** | .47 | .04 | 11.23 |

*** $p < .001$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포함한 추정치를 나타내는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40, p<.001$), 자기주도학습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58, p<.01$).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은 자기주도학습($\beta=.17, p<.001$)과 학습몰입($\beta=.52,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은 학습몰입($\beta=.45,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기주도학습과 학교적응은 직접적으로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하여, 그리고 학교적응은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습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간접효과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해 본 결과 간접효과 크기가 $Z=2.75(p<.001)$ 로 나타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한 결과에서도 학교적응을 매개한 효과는 $Z=2.76(p<.001)$ 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을 매개한 간접효과 크기는 $Z=2.95(p<.001)$ 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최종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 대한 최종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난 결과가 다음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모형에서 경로들의 구체적인 총효과(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분해는 <표 5>와 같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에 $\beta=.51$ 의 총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두 간접

효과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과 학교 적응을 매개로 하여 학습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학교적응은 학습몰입에 총 $\beta=.60$ 의 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효과가 $\beta=.52$, 간접효과가 $\beta=.08$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은 학습몰입에 총 $\beta=.46$ 의 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습몰입의 총효과 분해 결과

| 경로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자기효능감 | → 자기주도학습 | .58 | .07 | .65 |
| | → 학교적응 | .40 | - | .40 |
| | → 학습몰입 | - | .51 | .51 |
| 학교적응 | → 자기주도학습 | .17 | - | .17 |
| | → 학습몰입 | .52 | .08 | .60 |
| 자기주도학습 | → 학습몰입 | .46 | - | .46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의 주요 변인으로 알려진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으로 설정하고, 이들 변인이 학습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r=.63, p<.001$), 학습몰입과 학교적응($r=.62, p<.001$),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r=.33,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단순상관의 결과로 보면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간의 관련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몰입과 학교적응간의 상관계수도 자기주도학습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자기효능감보다는 자기주도학습과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로 알 수 있는 바는 자기주도학습과 학교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들(박형근, 2010; 소연희, 2011; 이지혜, 2010)과 같은 결과이다.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보다 약간 어려운 도전적 과제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정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Csikszentmihalyi, 1990),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이지혜, 2010). 다음으로 학교적응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변인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이숙정, 2011; 정석현, 이종우, 2008)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간의 정적인 상관 역시 기존의 연구들(이숙정, 2011; 주영주 외, 2010; Puzziferro, 2008)을 지지하고 있으며, 몰입을 위한 학습과정

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Gonzalez-Cutre, Sicilia, Moreno와 Fernandez-Balboa(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몰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을 높이기 위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각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를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학습과 학교적응은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학습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학습몰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총효과로 본다면, 학교적응으로 나타났다($\beta=.60$).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학교적응이 학습몰입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습몰입에 대한 적응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직무관련 분야의 연구들(이상진, 2011; 정윤경, 정철영, 2006; Scandura & Lankau, 1997)과 불안이나 걱정, 권태 등의 상태가 몰입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Csikszentmihalyi (2003)의 언급 등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직무몰입을 중심으로 적응의 영향을 연구한 다른 분야의 연구들(김동희, 2012; 이용석, 2010)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분야의 적응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학교장면에서도 나타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추측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교적응이 학습몰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통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학업성적이 저조해지고

심한 경우 학교중퇴 등의 결과를 얻게 되므로 (좌현숙, 2012), 학교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보다는 학교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Goleman, Boyatzis와 Mckee(2002)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동기부여와 흥미를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다. 학교장면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낀다는 것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적응이 학습몰입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학습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소연희, 2011; 이지혜, 2010)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지혜(2010)는 몰입은 자기목적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기목적적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일수록 심리적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삶에 있어서 더 주도적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발휘되어야 하며, 또 심리적 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곧 자기주도적학습자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몰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습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학습몰

입에 직접 효과를 갖는다는 기존 연구들(김종운, 김효은, 2012; 주영주 외, 2010; Linnenbrink & Pintrich, 2003)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주는 총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설정된 모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보여진다. 예컨대 주영주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간에 매개변인을 두지 않고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로 모형을 설정하였고, 그것을 검증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적응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변인으로 두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이 두 변인을 매개로 하여 학습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학교적응과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학교적응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습몰입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자기효능감이 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주영주 외, 2010; Puziferro, 2008). 자기효능감을 유능감이라 본다면, 학습자들의 자신감이 증가할수록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습몰입을 위해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적응, 자기주도학습,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주는 영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적응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학습몰입에 중요한 선행조건이 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전국의 중학생들을 표집하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집단에 대해서만 검증된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은 설정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므로, 본 연구모형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새로운 표본으로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간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계보경·김영수(2008). 증강현실 기반 학습에서 매체특성, 현존감, 학습몰입, 학습효과의 관계 규명, *교육공학연구* 24(4), 193~224.
- 김동희·하규수(2011).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과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187~201.
- 김동희(2012).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과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경·김재동(2005). 컴퓨터 게임을 통한 학습의 몰입 관련변인이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3), 89~114.
- 김아영·차정은(1996). 자아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통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51~64.
- 김영희·김영수(2006). 온라인 영어 쓰기 학습에서 학습자 개인차 변인, 몰입(flow), 언어 학습 전략, 성취도, 만족도의 관계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4), 289~314.
-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종운·김효은(2012).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1), 97~118.
- 김종운·정보현(2012).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 고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135~355.
- 김진호(2003).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정(2012). 교사-학생관계 및 학습동기와 학습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중(2012). 중학생의 긍정심리와 부모양육태도, 학습몰입, 학업성취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익·김연경(2006).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14(1), 93~115.
- 박형근(2010). 동기요인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종찬(2011).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임복(2008). 학습몰입의 성격분석연구-학습동기, 학업성취도 및 Csikszentmihalyi 몰입모형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24(1), 187~212.
- 소연희(2011). 학습자가 지각한 교사의 수업활동,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인 관계분석, 아동교육 20(2), 19~32.
- 신현아·장윤옥(2011). 방과후학교의 유형과 학습몰입 정도에 따른 중학생의 방과후 학교 교육만족도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8), 499~511.
- 유은주·최명숙·최성열(2010). 청소년이 지각한 학습풍토, 가정의 도전과 지원, 학습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몰입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4(3), 707~732.
- 이상미(2011). 초등학생의 성취목표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진(2011). 경력 정체성과 경력 적응성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정(2010).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학생관계와 학습풍토 및 학습몰입의 경로분석, 초등교육연구 23(4), 207~227.
- 이숙정(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용석(2010). 공식적 멘토링이 대학선수의 대학생활 적응과 선수생활 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1).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지전략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3), 199~216.
- 이인학, 박지은, 김도진, 최성열(201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아동교육 20(3), 21~31.
- 이재신(2009). 고등학생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77~295.
- 이정민·윤석인(2011).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 학습몰입의 예측력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2(1), 141~166.
- 이지혜(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48(2), 67~92.
- 이하늘·이숙(201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2), 65~74.
- 장태원·홍아정(2011).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흡수능력과 정서적 몰입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2(2), 17~34.
- 정석현·이종우(2008).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 몰입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17(4), 497~512.
- 정운경·정철영(2006).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직업적응과 조직몰입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4), 89~114.
- 좌현숙(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주동범(2011).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3(2), 141~349.
- 주동범, 전은순(2011).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경험 및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1), 15~28.
- 주영주·김지연·최혜리(2009). 기업 사이버교육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몰입,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공학연구 25(4), 101~124.
- 주영주·임연옥·손현수(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의 학습몰입, 교과 만족도, 학습

- 지속의향 예측,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01~122.
- 주영주 · 정애경 · 임연옥 · 김가연(2010). 전문대학생의 강좌에 대한 자기효능감, 유용, 용이성, 몰입 및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교육의 이론과 실천 15(3), 217~238.
- 한상훈(2006).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 주도학습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2), 473~488.
- 허남진(2005). 학습자 변인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예측력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허은영(2009).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효능감,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중등교육연구 57(2), 209~234.
- 홍기철(2009). 수업변인과 학습몰입과의 관계 연구. 사고개발, 5(1), 19~44.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황석준 · 최형임 · 홍순구 · 이강배(2012). 해운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4(1), 95~110.
- Adlai-Gail, W.(1994). *Exploring the autotelic person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ong, M., & Skaalvik, E. M. (2003).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How different are they reall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5(1), 1~40.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Csikszentmihalyi, M.(2003). 창의성의 즐거움 (노혜숙 역). 서울: 북로드. (원서출판 1996).
-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W., & Whalen, S.(1993). *Talented teenager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eman, D., Boyatzis, R., & Mckee, A.(2002). *Primal leadership: Realizing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장석훈역(2007). 감성의 리더십. 경기: 청림출판.
- González-Cutre, D., Sicilia, A., Moreno, J. A., & Fernández-Balboa, J. M. (2009). Dispositional flow in physical education: Relationships with motivational climate, social goals and 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8, 422~440.
- Hektner, J. M.(1996). *Exploring optimal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eyes, C. L. M., & Lopez, S. J.(2002). Toward a science of mental health: Positive directions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s.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45-5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Association Press.
- Kye. B. (2009).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s among media characteristics, presence, flow, and learning effects in augmented reality based learning, *Multimedia and E-Content Trends*, A. 21~37.
- Linnenbrink, E. A., & Pintrich, P. R. (2003).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i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Reading & Writing Quarterly*, 19, 119~137.
- Puzziferro, M. (2008). Online technologies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s predictors of final grade and satisfaction in college-level online cours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22(2), 72~89.
- Scandura, T. A., & Lankau, M. J.(1997). Relationships of gender family responsibility and flexible work hours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18. 377~391.
- Shin, N. (2006). Online learner's 'flow' experience: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7(5), 705~720.
- Sternberg, R. & Davidson, J. (1995). *The nature*

of insight, Cambridge, Mass: MIT Press.

-
- 논문접수일 : 2012년 10월 20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11월 07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09일